

# 다니엘서 - 제22번

예언적 논쟁의 베일을 벗기기: 늦은 비와 최후의 위기의 방법론

Jeff Pippenger

2023-12-17

하나님이 승인하신 방법론은 이사야 28장과 29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그 방법론은 "줄에 줄"로 표현되어 있다. 2001년 9월 11일 계시록 18장의 강한 천사가 강림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1840년 8월 11일에 했던 강림을 반복했다. 두 경우 모두 그의 강림 후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되었고, 그 안에 여전히 있는 자들에게 나오라는 부르심이 있었으며 곧 다시 있을 것이다. 두 경우 모두 그 예언을 성취한 사건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1840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 전해졌던 것처럼, 2001년 9월 11일의 사건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고 전 세계가 그 사건을 이해했다. 1840년 8월 11일에 성취된 예언은 둘째 화의 이슬람에 역제가 가해짐을 지적하는 예언이었고, 2001년 9월 11일 직후에는 셋째 화의 이슬람에 역제가 가해졌다.

1840년 8월 11일은 1798년 끝의 때에 봉인이 풀린 메시지가 능력을 입은 것을 나타내며, 2001년 9월 11일은 1989년 끝의 때에 봉인이 풀린 메시지가 능력을 입은 것을 나타낸다. 첫째 천사 운동의 주요 규칙은 1840년 8월 11일에 확증되었고, 그 규칙은 하루를 일 년으로 보는 원칙이었다. 셋째 천사 운동의 주요 규칙은 2001년 9월 11일에 확증되었다. 그 규칙은 "line upon line"을 적용하여 진리가 확립되며, 끝이 시작으로 설명되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1년 9월 11일의 예언적 사건은 화이트 자매의 직접적인 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 사건들이 밀러파 역사에서 같은 이정표와 정확히 대응했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1840년 8월 11일의 사건으로 인정된 것은 예언의 성취 그 자체라기보다, 밀러와 그의 동료들이 채택한 방법론의 타당성이었다.

그 사건은 그 예언을 정확히 성취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이 채택한 예언 해석의 원칙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재림 운동에 놀라운 박차가 가해졌다. 학식과 지위 있는 이들이 밀러와 연합하여 그의 견해를 설교하고 출판하는 일에 동참했으며, 1840년부터 1844년까지 그 사업은 급속히 확장되었다. 대쟁투, 335쪽

2001년 9월 11일, 늦은 비가 측정되기 시작했을 때, '논쟁'은 참된 방법론이나 거짓된 방법론이냐를 두고 벌어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밀러파 운동의 예언들은 1843년과 1850년 도표 모두에 제시되어 있는데, 화이트 자매는 그것들이 주께서 설계하신 것이며 하박국 2장의 성취라고 인정한다. 밀러와 그의 동료들이 채택한 '예언 해석의 원칙들, 그리고'를 통해 산출되었고, 이후 '한밤중 외침'의 기별에 힘을 실어 준 '놀라운 추진력'을 낳았던 밀러파의 기별은 그 두 거룩한 도표에 표현되어 있었다. 그 두 거룩한 도표에 나타난 예언들은 밀러의 예언 규칙들에 의해 식별되고 확립되었다. 그 도표들은 하박국에서 밀러의 방법론에 의해 확립된 그 예언들을 복수형인 'tables' 위에 시각적으로 나타내라는 명령의 성취였다. 하박국 2장은 이사야 27장의 '논쟁'을 지목하며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는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와 내가 책망을 받을 때 무엇이든 대답할지를 보기 위해 지켜보리라. 하박국 2:1.

그 절에서 "reproved"라는 단어는 '논쟁을 벌이다'를 의미한다. 첫째와 셋째 천사의 운동의 파수꾼들 모두를 대표하는 하박국은 논쟁을 당하게 될 것이었고, 논쟁이 시작될 때 자신이 무엇이든 대답해야 할지 이해하고자 했다. 첫째 천사의 역사에서의 해답은 두 개의 신성한 도표의 제작이었고, 셋째 천사의 운동의 역사에서의 해답은 "하박국의 두 표"라는 제목의 예언 시리즈의 제작이었다. 그 도표들과 그 시리즈는 각각의 해당 역사에서 제시된 방법론 위에 세워졌다. 하박국에서는 그 방법론이 파수꾼들이 그 기별을 확립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논쟁'되는 쟁점을 규정하는데, 그 결과로 두 부류의 예배자들이 생겨난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와 내가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를 보려고 지켜보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분명히 새겨라. 읽는 자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아직 정한 때를 위함이니, 그 끝에 이르면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저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반드시 임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이 높아져 그 속에 정직함이 없으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1-4.

한 부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다른 부류는 마음이 교만해지니, 이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로 나타나 있다. 바리새인들은 관습과 전통에 근거한 방법론을 신뢰했으며, 또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진리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위계적 체제를 시행함으로써 그들의 양 떼를 통제하던 종교 체제를 대표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했다. 이사야 27장의 예언적 '논쟁'은 참과 거짓의 성경적 방법론을 둘러싼 것이다. 그 '논쟁'의 대립 당사자는 그 시대를 위한 엘리야의 방법론을 따르는 이들과, 그리스도 시대의 산헤드린으로 전형화되는 오래도록 확립된 신학 전문가 체제다.

제27장은 '동풍의 날'에 하나님이 '그의 거친 바람'을 '그치게 하실' 때, 곧 그가 억제하실 때 '논쟁'이 시작됨을 밝힌다. "분량대로 그 싹이 돋을 때 네가 그것과 변론하리라. 그는 동풍의 날에 그의 거친 바람을 멈추시리라.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죄악이 속죄되리라." 'purged'라는 단어는 속죄됨을 의미하며, 조사심판에서 죄가 도말되는 것을 나타낸다. 논쟁의 대상이 되는 그 방법론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도말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을 나타낸다. 시험으로서의 엘리야의 방법론은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나타나 있으며, 그때 그리스도께서 엘리야로 동일시하신 세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으로부터 유익을 받을 수 없다고 미리 경고되었다.

늦은 비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나타나는데,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늦은 비는 '새롭게 함'으로도 표현되며, 이는 '주님의 임재'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가 지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사도행전 3:19, 20.

화이트 여사는 1840년 8월 11일,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내려온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름없는 분”이라고 밝힌다. 그러므로 2001년 9월 11일에 내려온 그 천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다름없는 분”일 것이다. 두 역사 모두에서 그분의 강림은 참과 거짓 방법론을 둘러싼 예언적 “논쟁”의 시작을 가리킨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으라고 명하신, 그분 손에 든 책으로 표상되기 때문이다.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선언하시며, 제자들에게 반드시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 자리에서 그분은 사역 전체 어느 때보다 많은 제자들을 잃으셨고, 떠난 자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떠난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올바른 영적 의미로 적용하기보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방법론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해석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사야 27장의 “논쟁”은 엘리야 사자가 대표하는 방법론과 대치하는, 정립되어 공언된 성경 해석 체계를 가리킨다는 것을 입증하는 여러 증거를 지닌 예언적 이정표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과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점차 지나쳐 가시는 과정에서의 특정한 전환점을 표시하며,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과의 언약적 관계의 시작을 가리킨다. 그 “논쟁”은 더 중요하게는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법으로 끝나게 될 기간의 시작을 나타낸다. 알파와 오메가는 항상 시작과 함께 끝을 나타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논쟁” 자체가 우리 조상들의 죄 가운데 하나를 상징하게 되는데, 레위기 26장의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한다.

다니엘서 9장의 기도는 요한계시록 11장의 3일 반이 끝날 때 드러져야 할 기도를 나타낸다. 그 기간은 이사야서 27장에서 다음과 같은 때로 묘사된다. “견고한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거주지가 버려져 광야처럼 남을 것이다. 거기서 송아지가 풀을 뜯고 거기 눕고, 그 가지들을 먹어 치울 것이다. 그 가지들이 시들면 꺾여 나가고,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불태울 것이다. 이는 그들이 깨달음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빚으신 이가 그들에게 은혜를 보이지 않으실 것이다.”

두 증인은 사흘 반의 “광야” 기간을 불러온 거짓 예언을 선포했기 때문에 “은총”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이전에는 “견고한 성”이었으나, 그 뒤로 “지각 없는 백성”이 되었다. 그 성은 “황폐”해지고 “버림받은” “거처”가 되었다. 그것은 소돔과 애굽이라 하는 성의 거리에 누워 있는 죽은 마른 뼈가 되었다. 그 후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는 부름이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로 시험을 받는데, 거기에는 첫째 기별이 권능을 받으며 시작되고 셋째 기별이 도래함으로 끝나는 기간의 시작에 있었던 “논쟁”이 포함된다. 그 논쟁은 그들의 역사 속 엘리야가 대표하는 방법론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1863년에 재림주의의 선구자들은 엘리야가 제시했던 모세의 “일곱 때”의 기별을 거절했다.

2023년 7월부터, 이사야 27장의 말라버린 가지들은 갈릴리의 교회가 지은 죄와 1863년의 역사, 그리고 2001년 9월 11일의 역사를 반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박국 2장과 이사야 27장이 제시하고, 엘리야와 세레 요한, 윌리엄 밀러가 보여 준 방법론을 거부하는 것은 세상 끝이 임한 이들을 위해 기록된 거룩한 본보기로부터 유익을 얻는

대신 우리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는 일이다.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난 것이며, 또한 세상 끝이 우리에게 임한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당한 시험은 오직 사람에게 흔한 것뿐이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게 하시지 않고,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를 피하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판단하라. 고린도전서 10:11-15.

거룩한 방법론은 한밤중의 외침, 곧 늦은비의 메시지를 정립한다. 그 메시지는 영적으로 먹을 때, 다니엘과 세 청년이 채식으로 인해 안색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던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그에 상응하는 경험을 낳는다. 그러나 하박국 2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제안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주를 알기 위해 계속 나아가기를 가로막는 교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방법론을 받아들이고 천사의 손에서 온 그 메시지를 먹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위에 내리는 은혜의 이슬과 단비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은 임하고 있다. 우리가 빛의 조각들을 거두어 모으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소중히 여길 때,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마치 땅이 싹을 돋게 하고, 동산이 그 안에 뿌려진 것들이 도단하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민족들 앞에서 의와 찬송이 소산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61:11.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제7권, 984쪽.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질 때,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내려오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이 성취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사야 27장은 그때를 "동풍의 날"로 규정하며, 그것은 "거친 바람"이 억제되는 때이다. "정한 분량대로, 그것이 솟아 나올 때 너는 그것과 닮을 것이요, 그는 동풍의 날에 그의 거친 바람을 억제하신다." 화이트 자매도 바로 같은 때를 지목한다.

"그때, 구원의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동안, 지상에는 환난이 임하고 열방이 분노하되, 그 분노는 셋째 천사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억제될 것이다. 그때 '늦은 비', 곧 주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심이 임하여, 셋째 천사의 큰 음성에 능력을 더해 주고, 마지막 일곱 재앙이 쏟아지는 때에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초기 저술, 85쪽.

열방을 분노하게 하는 권능은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임했다. 그러나 그 권능이 열방을 분노하게 하자마자 그것은 억제되었는데, 이는 이사야가 그가 '그의 거친 바람을 억제하신다'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 거친 바람은 곧 동풍이며, 늦은 비가 뿌려지기 시작하고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 그 바람은 억제된다. 구원의 마무리 사역은 인치는 때이다. '줄에 줄을 더하며,'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동안 억제되는 그 거친, 곧 동풍은 요한계시록 7장의 네 바람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도 바다에도 어떠한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한 천사가 해 돋는 곳에서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1-3.

십사만 사천의 인침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예표되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생애에서 단 한 번 나귀(이슬람의 상징)를 타셨고, 나사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행렬을 이끌었다. 화이트 자매는 그 역사에서 나사로를 인의 상징으로 지목했다.

나사로에게 오시기를 지체하신 데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자비의 목적이 있으셨다. 그분은 지체하셨다. 이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그분의 완고하고 믿지 않는 백성에게 그분이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또 하나의 증거로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이스라엘 집의 가난하고 방황하는 양들인 그 백성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리기를 내키지 않으셨다. 그들의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다. 그분은 자비로, 생명과 불멸을 밝히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곧 회복자이심을 보여 주는 증거를 그들에게 한 번 더 주고자 하셨다. 이는 제사장들이 곡해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야 했다. 이것이 그분이 베다니로 가시기를 지체하신 이유였다. 이 절정의 기적, 곧 나사로의 부활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신성에 대한 주장 위에 하나님의 인을 찍어 입증하는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528, 529.

2020년 7월 18일에 시작된 지체의 때는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지체하신 것으로 상징된다. 요한계시록 11장의 지체의 때는 삼일 반이 끝날 때 끝난다. 그 날들 동안 두 증인은 거리에서 죽은 채로 누워 있었다. 그리고 지체의 때 뒤에 나사로가 부활하게 되어 있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부활한 후에는 예루살렘 입성 행렬을 이끌며, '하나님의 인'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는 '절정의 기적'을 상징한다. 그 부활은 14만 4천의 인침이 끝났음을 가리키는데, 그 인침은 2001년 9월 11일에 몰아닥친 네 바람, 동풍, 거친 바람이 억제되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다.

일요일 법령의 때에, 그 바람들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응보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풀려난다. 지금 그 바람들은 인침의 기간 동안 그들을 붙잡아 두고 있는 네 천사의 손가락 사이로까지 미끄러지듯 빠져나오고 있다. 동풍의 날과 관련된 예언의 신의 가장 심오한 언급들 가운데 하나는 '교회증언' 9권에서 발견된다. 그 권에서는 영감의 말씀이 11쪽에서 시작되므로, 상징적으로 '9.11'에서 시작하는 셈이다. 그 장의 제목은 '최후의 위기'이며, 동시에 '왕의 오심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부분의 첫 장이기도 하다.

그 책을 편찬한 이들이 그 장의 단락과 제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왕의 오심은 신랑의 오심으로 쉽게 인식되는데,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그들의 그릇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처녀들에게 생겨나는 한밤중의 위기와 함께 그것이 일어난다. 이제 닥쳐오는 한밤중의 위기는 제목이 나타내듯이 열 처녀에게 임하는 마지막 위기이다.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난다. 그 기름은 단순히 성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성령으로, 또한 올바른 메시지로, 또한 올바른 품성으로 규정된다.

올바른 방법론은 한밤중의 외침에 대한 올바른 메시지를 확립하며,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 실천할 때 올바른 품성이 형성된다. 마지막 위기 속에서 그 품성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품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는 과정은 동풍의 날이 도래한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다. 그때의 메시지는 먹어야 했다.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사야의 "변론"으로, 또한 논쟁 중에 파수꾼들이 무엇이랴 대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으로 나타나 있다. 마태복음 25장과 하박국의 지체의 때는 예배자 두 부류의 표상으로 결론을 맺는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사흘 반으로 표상된 지체의 때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 지체의 때는 제9권의 그 장 서두에서도 히브리서의 한 구절과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거기서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의역한다. 바울의 언급은 하박국 2장을 셋째 천사의 운동 속에 위치시키는데, 이는 바로 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그 역사 속에서 그분의 대제사장 사역의 빛이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가장 분명하게 계시한 것은 바울이 기록한 히브리서이다.

셋째 천사의 운동에서는 하박국 2장이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이동하시는 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 일은 한밤중 외침의 선포가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언급한 지체하는 때는 하박국과 마태복음의 지체하는 때이지만, 그것은 2020년 7월 18일에 시작될 지체하는 때이다. 하박국 2장의 마지막 절은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서 한밤중 외침의 결론과 셋째 천사의 도래를 나타낸다: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20.

Testimonies 제9권은 11쪽(나인-일레븐)부터 열 처녀의 비유, 지체하는 때와 그것의 하박국과 마태복음과의 연관성, 그리고 최종 위기와 예언적 논쟁이 도래한 2001년 9월 11일을 강조한다.

제1부—왕의 임하심을 대비하여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37.

최후의 위기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빠르게 성취되어 가는 시대의 징조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엄숙하고 중대한 때이다. 하나님의 영이 점차 그러나 확실하게 이 땅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재앙과 심판이 임하고 있다. 육지와 바다의 재난, 사회의 불안정, 전쟁의 위협은 불길한 전조다. 그것들은 가장 중대한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한다.

악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결속을 다지고 있다. 그들은 마지막 대위기를 대비해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 세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최종 국면은 급속히 전개될 것이다.

세상의 형편을 보면 험난한 때가 우리 바로 앞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간지들은 가까운 장래에 닥칠 참혹한 분쟁의 징후로 가득하다. 대담한 강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난다. 파업은 흔하다. 절도와 살인이 도처에서 저질러지고 있다. 귀신들린 자들이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악에 현혹되어 있으며, 온갖 종류의 악이 판치고 있다.

적은 정의를 왜곡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리사욕을 좇는 욕망으로 채우는 데 성공했다.

"정의는 멀리 물러나 있고, 진리는 거리에 쓰러졌으며, 공평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사야 59장 14절. 큰 도시들에는 빈곤과 비참 속에 살며 먹을 것과 거처와 의복이 거의 없는 무리가 많다; 반면 같은 도시들에는 마음이 바라는 것 이상을 가진 자들이 있어 사치스럽게 살며, 화려하게 꾸민 집과 개인적 치장에 돈을 쓰고, 더 나아가 감각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술과 담배와 두뇌의 능력을 파괴하고 정신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영혼을 타락시키는 다른 것들에 돈을 쏟아붓는다. 굶주리는 인류의 절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사람들은 온갖 형태의 압제와 착취로 거대한 재산을 쌓아 올리고 있다.

한 번은 뉴욕시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나는 하늘을 향해 층층이 솟아오르는 건물들을 보라고 부름을 받았다. 이 건물들은 불에 타지 않는다고 보증되었고, 그 소유주와 건축자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 건물들은 더 높고, 더 높고 치솟았고, 그 안에는 가장 값비싼 자재가 사용되었다. 이 건물들의 소유자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주님은 그들의 생각 속에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아, 이렇게 자기들의 재원을 투자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들의 행로를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웅장한 건물들을 쌓아 올리고 있지만, 우주의 통치자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계획과 궁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들은 마음과 정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 연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 곧 사람의 첫째 되는 의무를 망각했다.'

이러한 우뚝 솟은 건물들이 세워져 갈수록, 소유주들은 자신을 만족시키고 이웃들의 시기를 불려일으키는 데 쓸 돈이 있다는 사실에 야심에 찬 자만심으로 기뻐했다. 그들이 이렇게 투자한 돈의 상당 부분은 가혹한 수탈과 가난한 이들을 짓눌러 착취함으로써 얻은 것이었다. 그들은 하늘에서는 모든 사업 거래가 기록되며, 모든 불의한 거래와 모든 사기 행위가 거기에 남겨진다는 사실을 잊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사기와 오만 속에서 주께서 더 이상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때가 올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에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화재 경보였다. 사람들은 높고 내화라고 여겨지는 건물들을 보며 말했다. '그 건물들은 완전히 안전하다.' 그러나 그 건물들은 마치 역청으로 만든 것처럼 전소되었다. 소방차로는 그 파괴를 막을 수 없었다. 소방관들은 장비를 작동시킬 수 없었다. 증언, 제9권, 11-13.

다니엘 1장이 대표하는 시기의 시작에서, 또 다니엘 1장부터 3장까지가 대표하는 시기에서, 그리고 1840년 8월 11일에 시작된 역사에서, 또한 갈릴리의 위기 때의

요한복음 6장의 역사에서, 그리고 2001년 9월 11일(2020년 7월 18일까지)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방법론을 둘러싼 그 '논쟁'이, 이제는 재림교회 전반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의해 그들의 무기력에서 일깨워지고 있는 죽은 마른 뼈들 사이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사야서 28장과 29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그 방법론이 늦은 비임을 고찰할 것이다.

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냐?' 하시기에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가 이르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무겁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감게 하여라. 혹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는 일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때 내가 여쭙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가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주민 없이 황폐해지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될 때까지, 또 주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고 이 땅 가운데 큰 황폐함이 있을 때까지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십분의 일은 남을 것이고, 다시 돌아오나 또 삼켜질 것이다. 상수리나무와 참나무가 잎을 떨어뜨릴 때에도 그 안에 본체가 남아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본체가 되리라.' 이사야 6:8-13.